

성베드로와 바오로사도
대 축일
(교 활 주 일)

기도서 493면 (C해)

제1독서 : 사도 12, ~11
제2독서 : 2티모 4, 6-8. 17-18
복 음 : 마태 16, 13-19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 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 18).

□ 강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현 유 복 신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부모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리키며 “누구지?” 하고 묻는다. 아이는 침흘리는 입으로 함박웃음을 지으며 “엄마, 아빠~”하고 혀도 안물아가는 대답을 하노라면 부모는 금세 신기한 듯 뚫뚫한 듯 아이를 얼싸안고 내세끼라 기뻐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지없이 고마운 일이다. 더우기 만사를 제쳐놓고 생명까지 바쳐가며 누구를 알뿐 아니라 믿는다고 증언한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 주님은 기꺼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전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맹신주의자가 아니다. 또한 현재적 부귀영화만을 기도하는 기복 신앙인도 아니다. 더더욱 지옥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노예가 아니며 입으로만 ‘주님 주님’을 힘없이 찾는 허약자도 아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야훼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유대인들이 제 모든 민족보다 특별한 민족이었다면 인류의 구원자시며 희망이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는 더욱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고백하는 한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앞에서 두려움없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는가? 오늘 독서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주의 천사가 유대백성들의 흉계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사도 바오로는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고 주님을 찬미하지 않았는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그분과의 관계를 헤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한 몸이라면 아무 두려움없이 그분을 온 몸을 다하여 큰소리로 외쳐야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희망을 이렇게 말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서는 이득이 됩니다.”(필립 1, 20). 아멘. (남원 주임신부)



개헌과 언론의 자유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야당은 헌특위 구성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속자 석방 결의안을 여당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맡기고 철회하는 대안보를 감행했다. 그래서 여야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오랜 산고끝에 합의했다. 이제 약자의 양보를 얻어낸 여당이 정치적 도의를 지키는 일이 남아 있다.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개헌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여야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치점을 찾기란 어렵다. 다만 국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새로운 불행을 불러들일 뿐이다. 대학생들이 헌특위 구성을 반대하고 나서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여망을 올바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인들의 자구선언조차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결코 우리의 언론자유가 제약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많은 국민들이 KBS TV 시청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시청로 거부운동의 핵심은 광고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지역적인 문제인 광고방송을 검차로 줄이겠다는 장관의 답변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알것을 제대로 알자는 민권운동의 하나인 시청로 거부운동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뒤의 일은 뻔하다 하겠다.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 부활만해도 그렇다. 국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법이론만 내세우지 말라.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하는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은 부활되어야 한다. 동양방송이나 중앙방송 및 TV도 그렇다.

숲 정 이 산책



재경신자 준비위원회 조직

평신도 교령(敎令)에 의한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 사목연수회를 모두 마치고—

김 환 철 신부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 신자로 불리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이며 평신도들의 사도적 활동이 초세기 교회에서 얼마나 자발적이었으며 얼마나 풍부한 효과를 내었는지는 성서가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성직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평신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제적과 예언적과 왕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세속에 살면서 세속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임으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누룩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 천주교회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래되었고 우리 교구 역시 평신도인 유태겔(아우구스티노)에 의하여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초대 교회에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교구는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교령이 선포되자 다른 교구에 앞서 평신도 교령에 따라 평신도 사도적 회칙을 제정하여 평신도들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교구로서의 구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활동에 끼친 영향이 대단했음을 밝혀둔다.

이제 우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신도 사도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시켜 주기 위하여 지구단위 전 사목회 임원 연수회들이미 4, 5월중에 마쳤고 6월중에 사목임원들의 각 분과별 부장들의 직책 소임에 대한 교육을 10개 분과별로 나누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사제들은 사제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학교에서 철학, 신학을 6년간 과정을 마치고 신품(神品)을 받았는데 평신도들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목회 임원들은 단 한시간의 교육도 없이 그 소임을 다한다는 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운전면허없이 가도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경우와 뭐가 다르겠는가? 전례부장은 해설대에 서서 미사해설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부장은 돈주머니만 보관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의 막중한 직책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을 도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이번 교육에서 많이 배웠을 줄 믿는다.

이번 연수회를 마치고까지 협조한 여러 신부님과 평협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 총대리·평협지도)

성서교실 ④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 (16: 16)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16: 14). 그러나 베드로는 의외로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다른 예언자들 보다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번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히브 1: 1~2).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16: 16). 마르코복음은 단지 「구세주」(그리스도)라고만 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서 중에 여기에만 나온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는 아주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17~19).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물론 전에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성자」라고 고백한 일은 있다(마태9: 27, 12: 23, 8: 29, 14: 33, 마르 1: 24, 요한 1: 41). 그러나 이것은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여러가지 설명 변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처음으로, 명백히, 정식으로, 결정적으로 고백다운 고백을 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교의 참다운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도덕교도, 수양교도, 위인숭배교도 아니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이다.



☆ 대입 종합반 · 단과반
강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병난방시설 완비)

全州英中學院

조흥은행 앞 개 강: 7월 1일
☎ 82-3537

母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미 美米星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 · 여행용가방 · 007
가방 · 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혜 경 (글라라)

교 구 소 식

1. 50주년 중앙위원회 : 7월 1일 (화) 오전 10시
2.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7월 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덕천천주교회 강사-김봉희 신부님, 양경배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도시락
3. 영구회 개최 : 7월 5일 오후 2시~오후 5시30분,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범위-교미시움·우리아 간부 전원, 참가비-각 우리아별 3,000원
4. 성빈첸시오 아·빠올로회 이사회 월례회의 : 7월 5일 오후 2시, 장소-사회복지회관
5. 전주교구 대학생 지역대회 : 7월 9일~12일, 접수-가톨릭센터 대학생회 사무실 (☎0041)
6. M·E가족 피정안내 : 일시-7월28일~30일, 장소-광주 예수 고난회 명상의집 접수-M·E사무실 또는 ☎1095(선착순 20가족)
7. 주소변경 안내 : 김진소 신부님 전주시 중화산동 2가 27번지 동남 삼정아파트 2동 304호 자택 82-0719
8. 축! 영명: 성베드로 바오로 사도축일 (29일) 이대권·서석기·김병열·김영신·박창진·엄기봉·문규현·이순성·김희남·박인호·정양현·방의성 신부님 성토마스 (7월 3일): 서용복·김정원·이재후·이종원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가정기도 독서: 시편 62:1~2 복음: 루카 12:33~34

초등부 여름방학 교리교재 안내

*아빠, 하느님

편집·발행: 전주교구 초등부 교리교사연합회, 교구청 홍보국
1986년 6월 30일 초판 발행. 4×6배판·원색 윗잇인쇄, 중철제본
아동용-20면, 각 학년별 300원
교사용-40면, 각 학년별 500원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7월 5일~8일, 화산 나바위 천주교회

회비-5개시 12,000원, 그외지역 10,000원
(교재강의·영성특강·테크리에이션·체육대회)
준비물-미사도구·복주·필기도구·세면도구·어린이미사책·우산·담요·수저·쌀 9기
분), 교통편은-공문 86-6호 참조
모든 교사들 꼭 참석바람
교리교재와 연수회 신청은-교구청 홍보국으로 ☎ 0041~3

♣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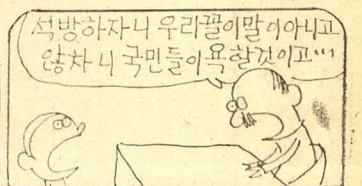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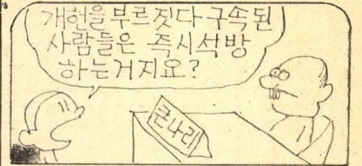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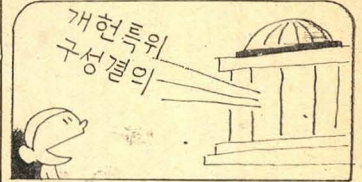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교리교재가 나왔다

우리 교마를 방학이 다가온다. 그 교마들을 위한 여름방학 교리교재가 나왔다.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해 마땅한 방학 교리교재가 없어 교재선택으로 매년마다 어려움을 겪어오던 바, 이번에 교구 홍보국에서 초등부 어린이 방학 교리교재를 펴낸 것.

특히 이번 교재는 교구 교리교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직접 꾸민 것으로 「아빠, 하느님」이란 주제를 각 학년별로 나눠서 교사용과 아동용을 동시에 펴낸 것이다. 박진량 신부님과 강덕창 신부님께서 교재내용의 감수를 해주셨고 특히 조찬화(해성교 미술교사)선생님이 예쁜 표지그림을 맡아 주셨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방학선물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교회 앞날을 생각할 때, 어린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고 오히려 아빠, 엄마들의 무관심이 문제 아닐까? 한 권씩 사주자. 모처럼 알찬 내용으로 꾸며진 여름방학 교리교재를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이 손에 들고 기쁘게 공부하며 이번 여름방학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또 교리교사를 위한 하계 연수회가 화산 나바위 본당에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수고할 본당 교사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자.

요심이 (673) 김병오



정신과학

무료세미나

(고도의 정신두뇌 활용법)

일시: 6월 29일(일) 및 7월 2일(수) 2시·7시

장소: 이리 동원예식장 (국민은행 옆)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회

수령지도: 박요한 선생님

- *훈수(회갑)웃감 | 도매상
- *복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속 일체 |
- *커넥트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성인병 치료의 신약 영지
※ 직접 참나무로 재배하
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함열 영지 농장

함열읍 와리 동지부락
(마을회관 뒤)
전화(0653) 6-1107
한상현(요셉)

명파의 전당

남원 풍미당제과

각종빵, 음료수, 선물용
케익, 아이스크림, 밀크
셰이크, 팔빙수
(남원 전북은행 옆,
구 중전제과)
전화 남원 2-2037
손흥섭(카시아노)
이선자(테레사)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성체주간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기도 합시다
2. 사목회 상임위원회: 7월 5일 오후 3시 상임위원님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본당 성지순례 인원점검: 본 행사에 있어, 지구역의 불참자 명단을 아직 제출 못한 구역장님께서는 내일 까지 꼭 제출하세요.
7월 10일까지 차량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4. 본당 울드레야: 3일 저녁 7시30분 미사후, 성체강복 후,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예수성심회 월례회: 7월1일 어머니미사 후
6. 환자봉성체: 7월3일 오후 2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7. 공소 순회미사: 7월5일 저녁 8시, 황운리공소
8. 축! 첫염성체식: 7월6일 오후 3시 미사중에
9. 아파트성당 소식
①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에 본당신부님을 위한 9일기도-7월2일부터 10일까지
②첫염성체식: 오늘 오후 4시 미사중에 (41명어린이)
③구역장·봉사자 모임: 7월3일 11시 미사후
10. 금주전례: 해설-김완준, 독서-봉헌-배기창 부부 신자기도-김진희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차주전례: 해설-전병주, 독서-봉헌-모보일 부부 신자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문영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6,790원 교무금: 437,300원 신축금: 84,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2-5238

- 1. 사목회: 오늘 오후 8시30분
2. 첫염성체 교리: 7월1일 오후 4시부터 14일까지 15일 첫염성체,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어머니와 같이 나오세요
3. 교리교사 하기수련회: 7월5일~8일 장소-화산 나바위
4. 교황주일 헌금: 오늘
5. 감사: 화분(大)증정 이지성씨(예비자)
6. 제대회: 7월3일 오전 10시미사
7.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원장수녀님 지도 목요일 오후 8시30분-본당신부님 지도
8. 축! 결혼: 오늘 12시, 복자성당 신랑-고성광(말구)군, 신부-최순옥양
9.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강준희 ②장주호 봉헌-박상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최창기 ②장만춘 봉헌-오장수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5,990원 교무금: 602,43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오늘은 교황주일: 특별 2차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 7월4일 저녁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납부주일: 교무금은 월납제로 꼭 지켜주세요

- 4. 본당 공사헌금: 구역장님 배정포대로 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4,720원 교무금: 47,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자모회: 1일 오전 10시30분
2. 2성당 첫염성체 어린이 26명 축하합니다 부모님의 지속적인 지도바람
3. 2성당 예비자 교리반: 신청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안내바람
4. 2성당 선풍기 기증: 4대(12만원)-익명, 1대(3만원)-유막달레나, 2성당 복사단 옷기증-2성당 성심회 감사합니다
5. 사제양성 후원금: 지금까지 신입된 29구좌 감사드라며 계속 신일바람
신입자-박장춘·의덕의거울·김옥로·이재해·진행설·이영숙·박순덕·유해미·익명(2성당)-각1구좌 감사합니다
6. 금주봉헌: 본당-강남준 부부, 2성당-오상팔 부부
차주봉헌: 본당-강기호 부부, 2성당-박찬주 부부
7. 차주전례
본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김낙균 ②장기호
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오수환 ②박병환
□ 지난주 봉헌금: 본당-292,590원, 2성당-138,770원
계-431,360원 교무금: 379,000원
미수금: 48,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 오늘은 50주년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1. 꾸르실료 울드레야: 오늘 공식미사 후, 사무실 2층 꾸르실리스타 전원 참석바랍니다
2. 성체강복: 7월3일 저녁미사 후
3. 유아세례: 7월5일 오전 11시
4.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가정회: 7월1일 11시, 미사있읍니다
6. 연구회: 7월5일 오후 3시, 꼬미시움·꾸리아간부·레지아 직속pr간부, 회비-3천원, 장소-전동성당
7. 감사: 이종두-50만원, 스테인드글래스 대금
□ 지난주 봉헌금: 1,032,660원 교무금: 610,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심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영세식: 7월5일 저녁 8시
2. 특별교리: 30일~7월4일 저녁 8시30분~9시30분
3. 본당신부와의 면담: 영세희망자는 반드시 특별교리 기간중 면담하세요
※ 면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 (7월1일~4일)
4. 주부 성서대학: 8월말까지 여름방학
5. 성모기사회: 7월5일 오후 1시30분
6. 유아세례: 오늘 10시
□ 지난주 봉헌금: 613,110원 교무금: 1,029,000원